

두 마음의 세 갈래 길

전주시평생학습관 | 2026년 4월 14일

강신익 / 의철학자, 인문의학자

사례 1 회피 본능과 접근 본능





1형



3형



4형

【골형성 부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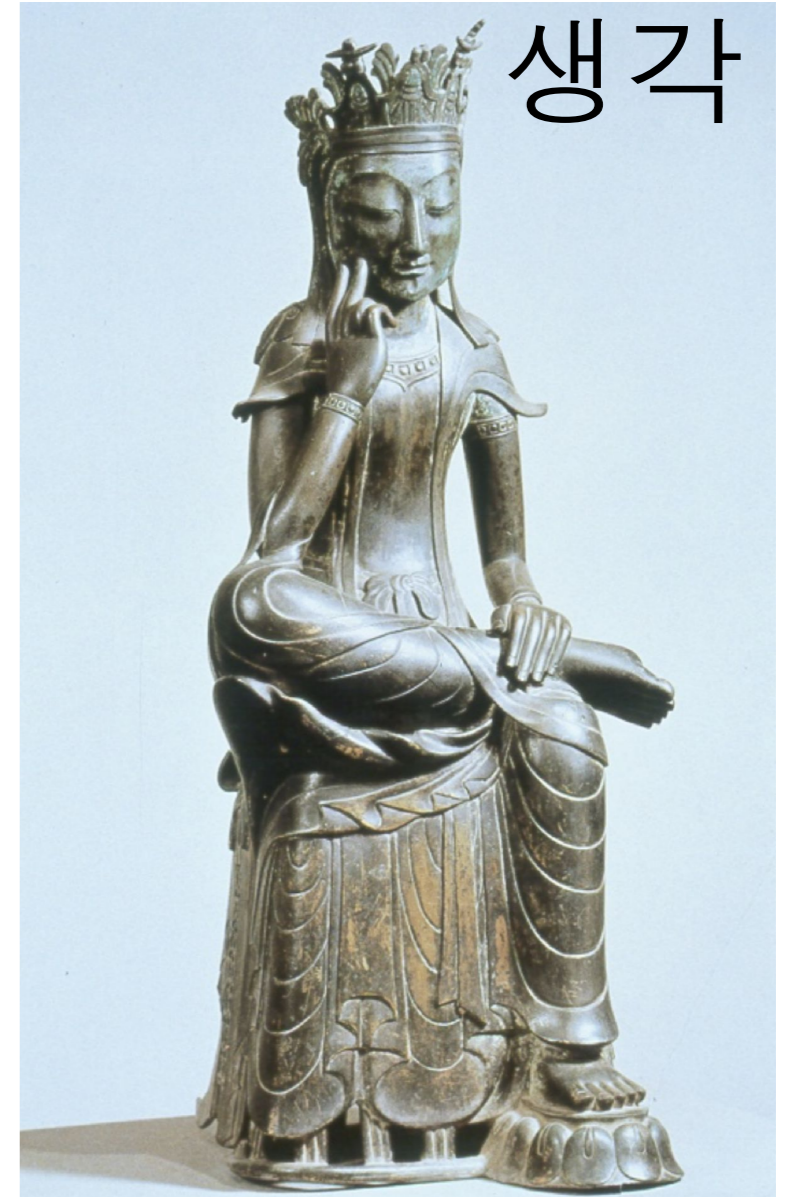


사례 2 - 희망 대신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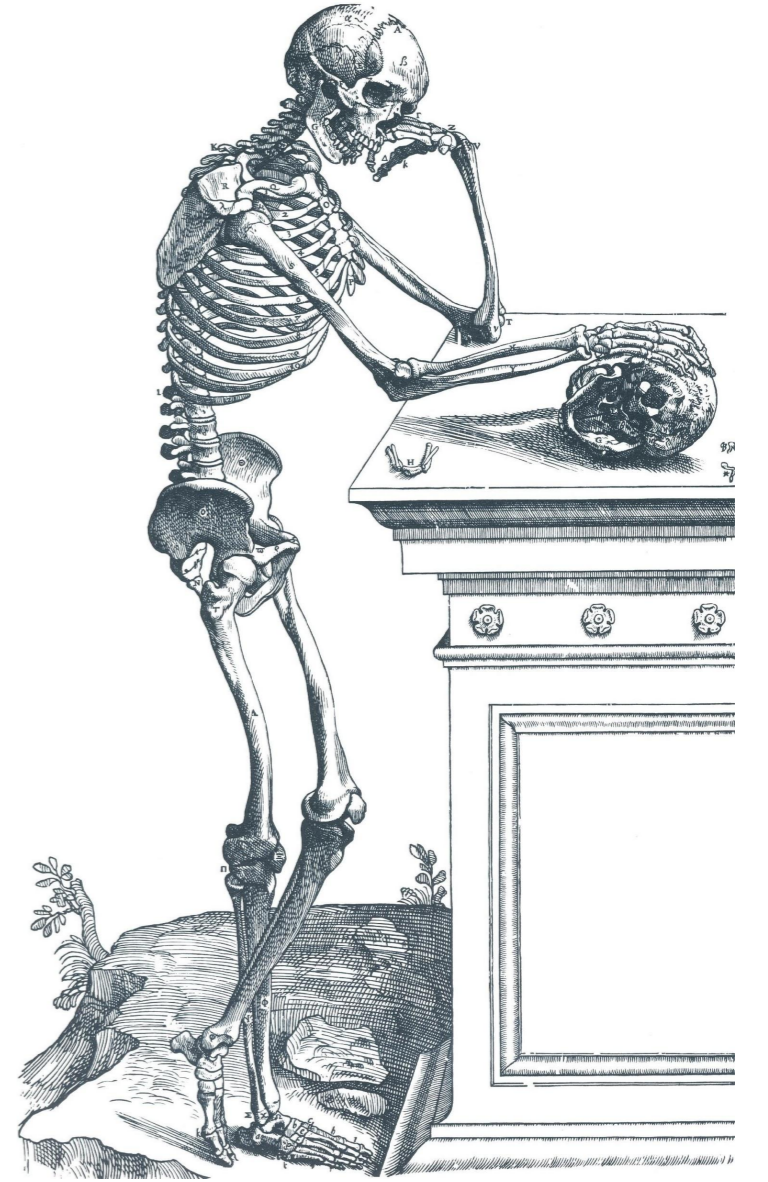
느낌



생각



두 마음 - 느낌과 생각



생각 - 느린 마음



느낌 - 빠른 마음

생각의 길

생각 → 존재

의식

과학

합리, 보편,
객관

느낌의 길

- 존재 지속의 지향
- 정서, 무의식
- 인문학, 예술
- 비합리, 특이, 주관



생각과 느낌은 갈래 길인가 평행 길인가?

마음의 재정의: 영혼이 아닌 도구

- 마음은 초월적 영혼이 아니다.
- 마음은 생각과 느낌으로 구성된 몸의 도구다.

몸은 위대한 이성이다.
하나의 뜻으로 묶인 여럿이다.

— 니체 (Nietzsche)



마음의 과학 : 동역학적 우주로서의 뇌



나는 내 몸이 발전시킨 갖가지 능력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쟁 활동의 조직화일 뿐이다.

— 대넷 (Dennett)



마음은 뇌의 준안정적인 동역학적 패턴을 구조하는 시공간적 패턴이다.

— 톰슨 (Thomson)

마음의 과학과 철학에서 찾는 삶의 길 3
뇌를 넘어, 몸과 세계로

마음은 몸속에
새겨져 있다.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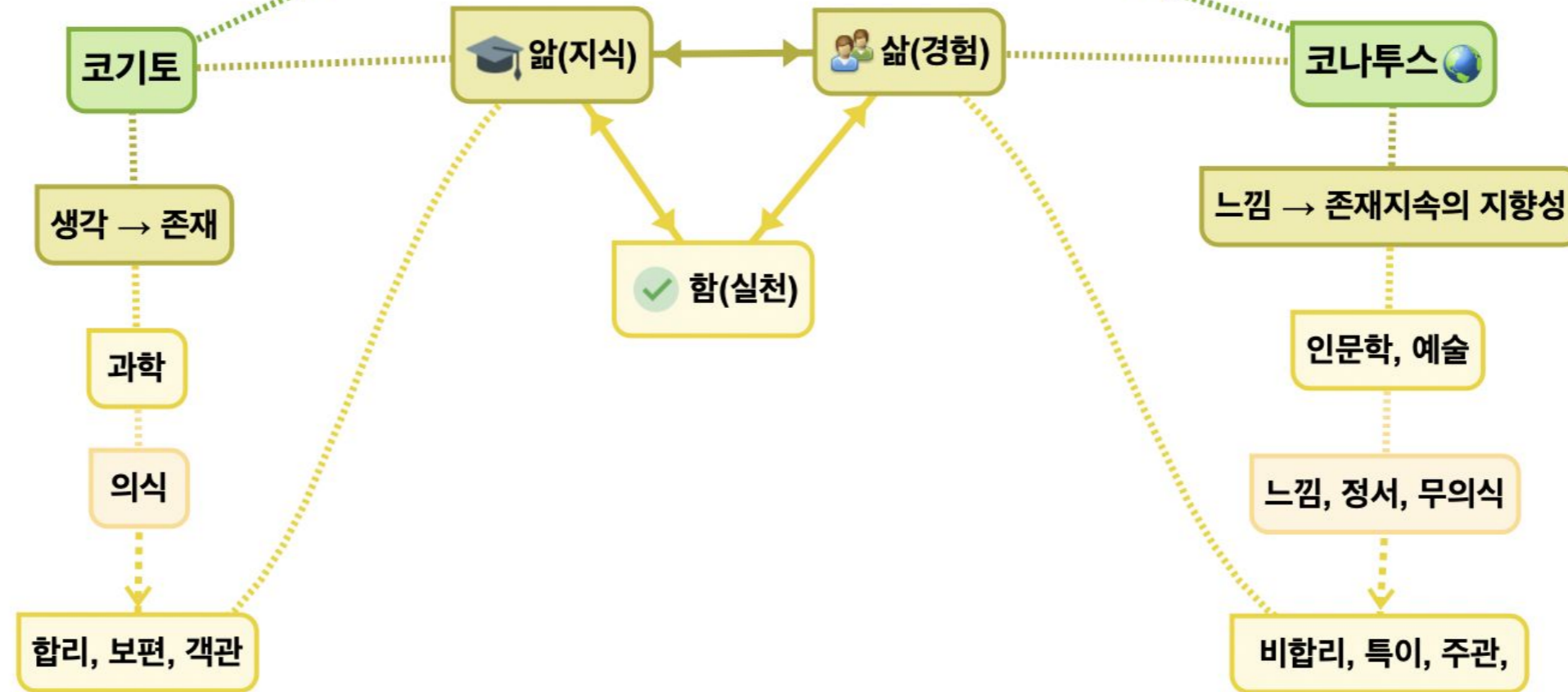
우리는 마음을
세계에 펼쳐놓는다.

프란시스코 바렐라 (Francisco Vare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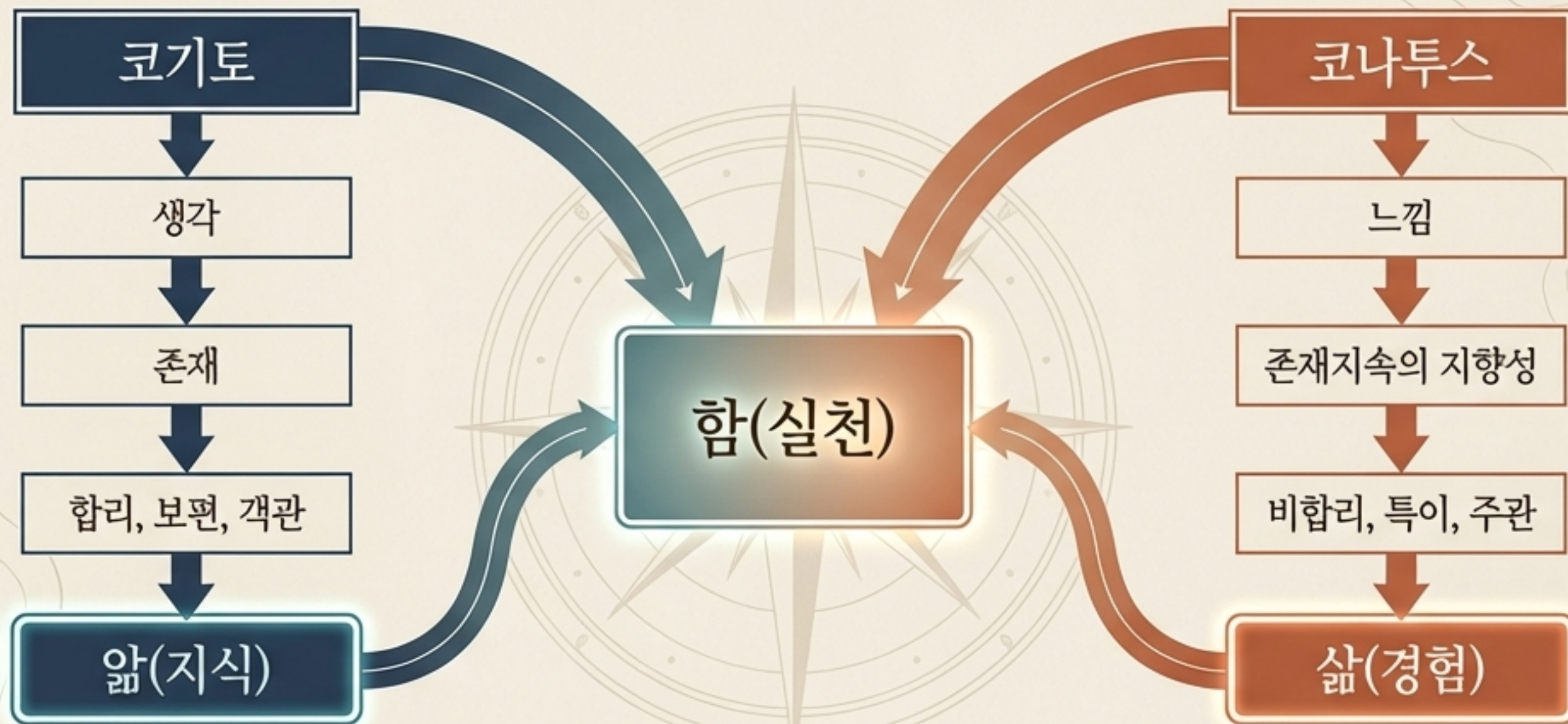


🗺️ 삶의 지도

마음의 두 갈래 길



삶의 지도와 체화된 인지



마음은 몸속에 새겨져 있다. (체화된 인지)
우리는 마음을 세계에 펼쳐놓는다. — 바렐라 (Varela)

경쟁과 협동의 변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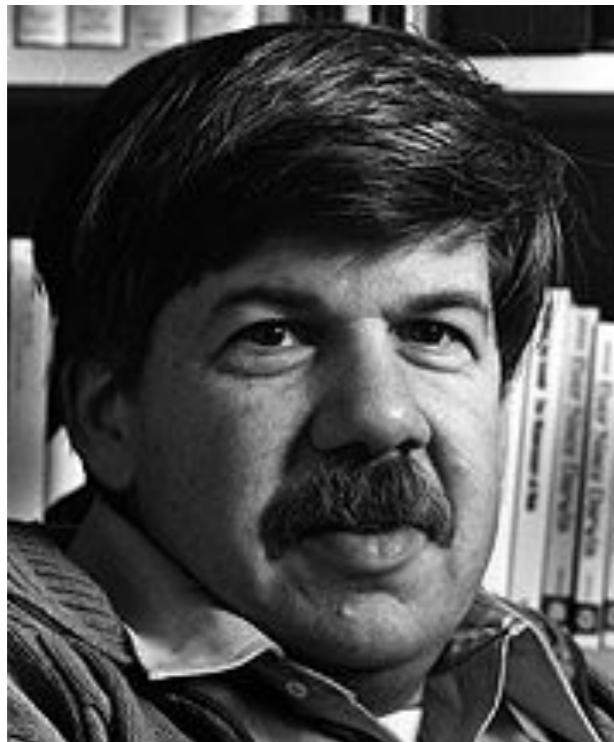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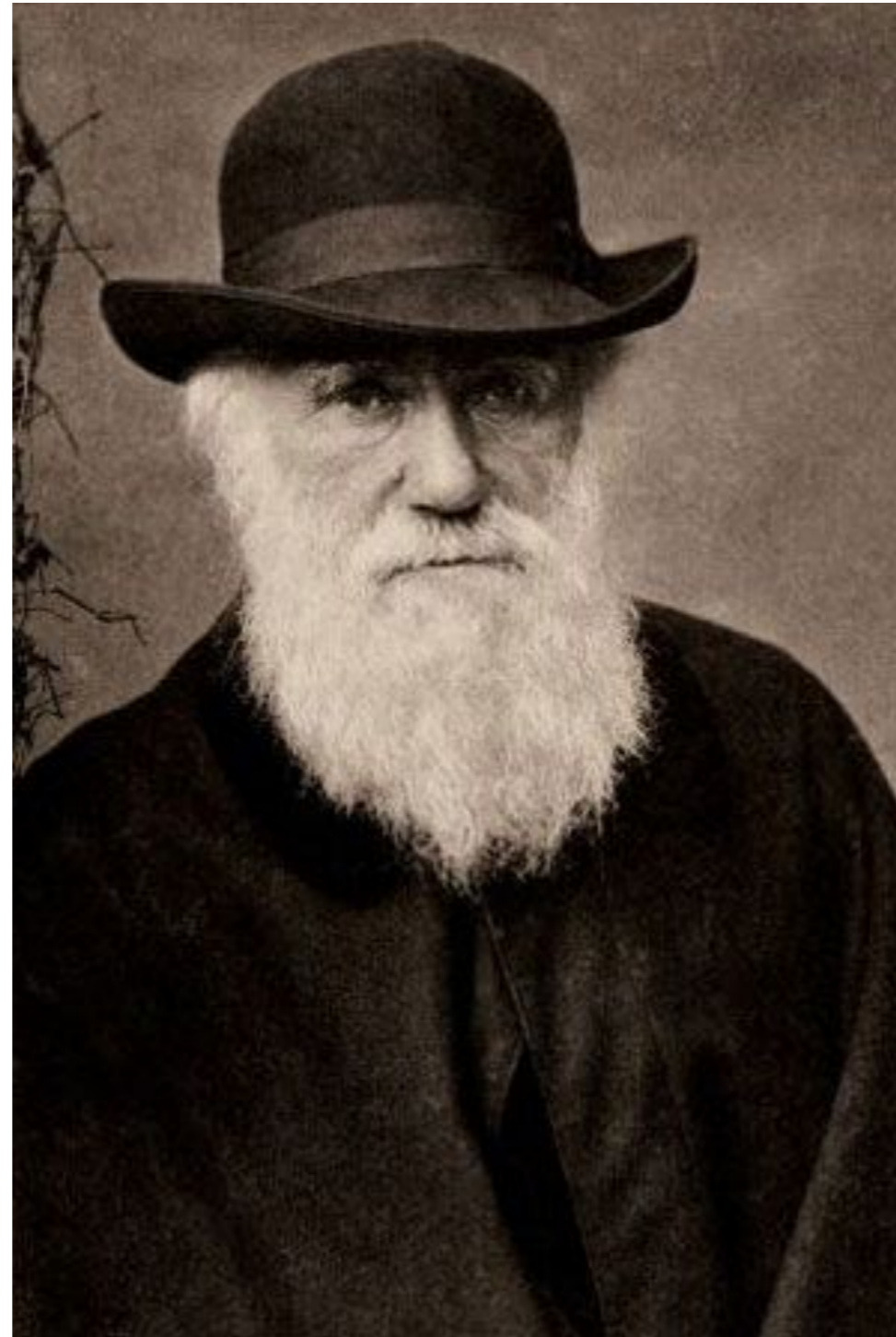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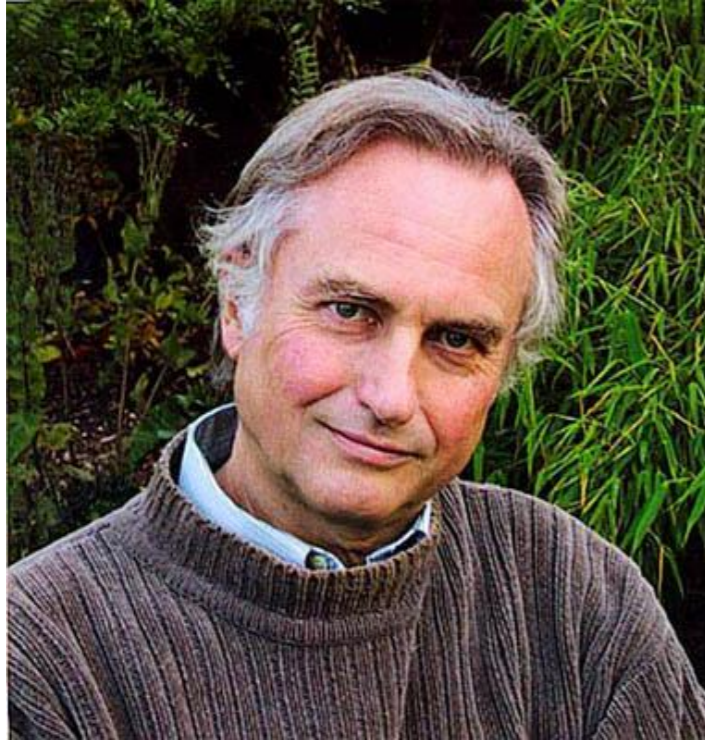
"나"로 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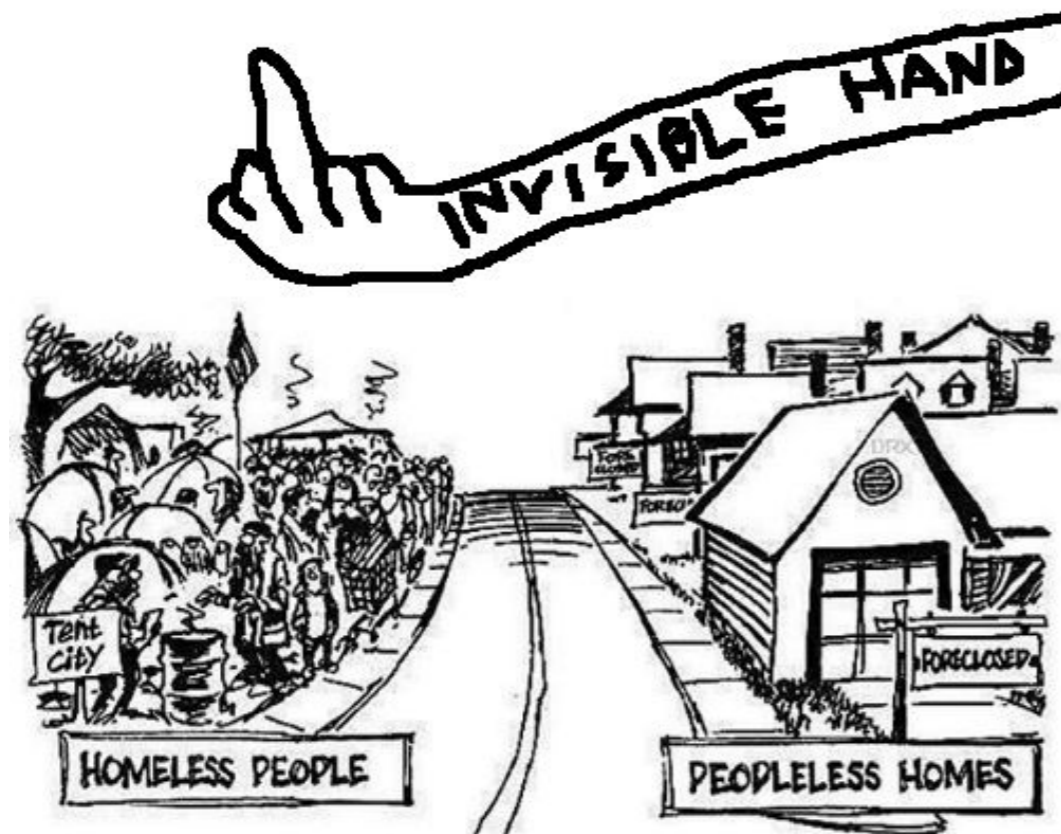


한국교육신문 2012.06.01



이기적 유전자와 보이지 않는 손

FREE MARKET CAPIT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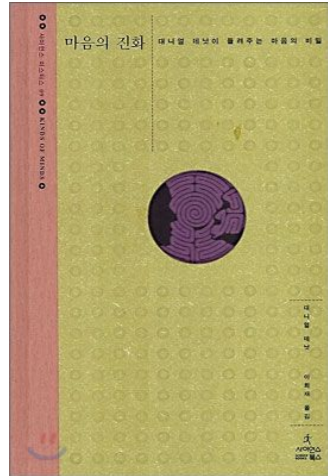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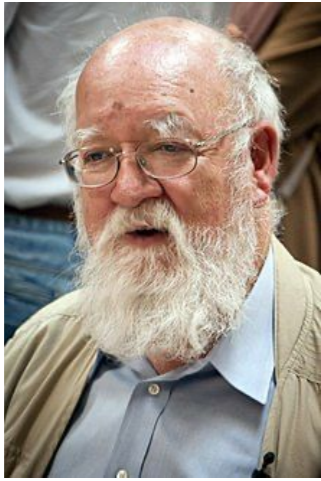
이타적 유전자와 따뜻한 손



세상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보는 세 가지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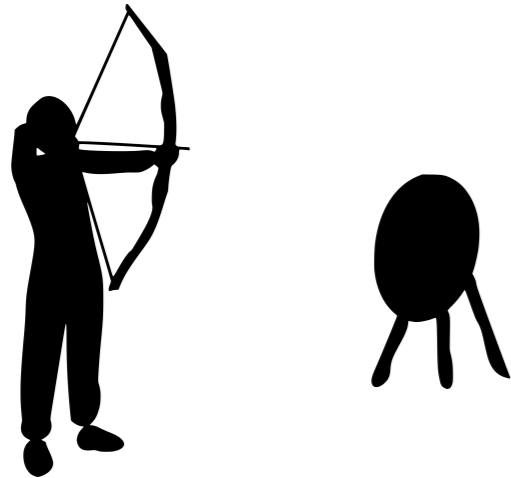
The Three Stances of
Learning and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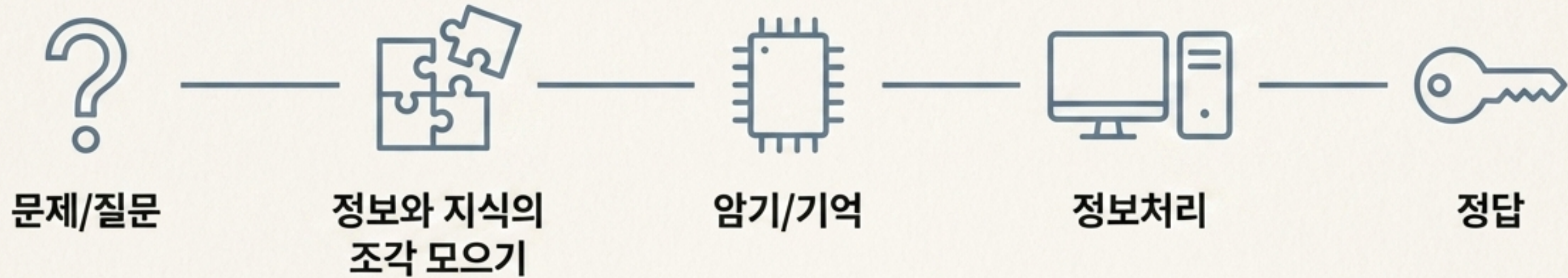


배움과 돌봄의 자세

- 물리적 자세
- 구조적 자세
- 지향적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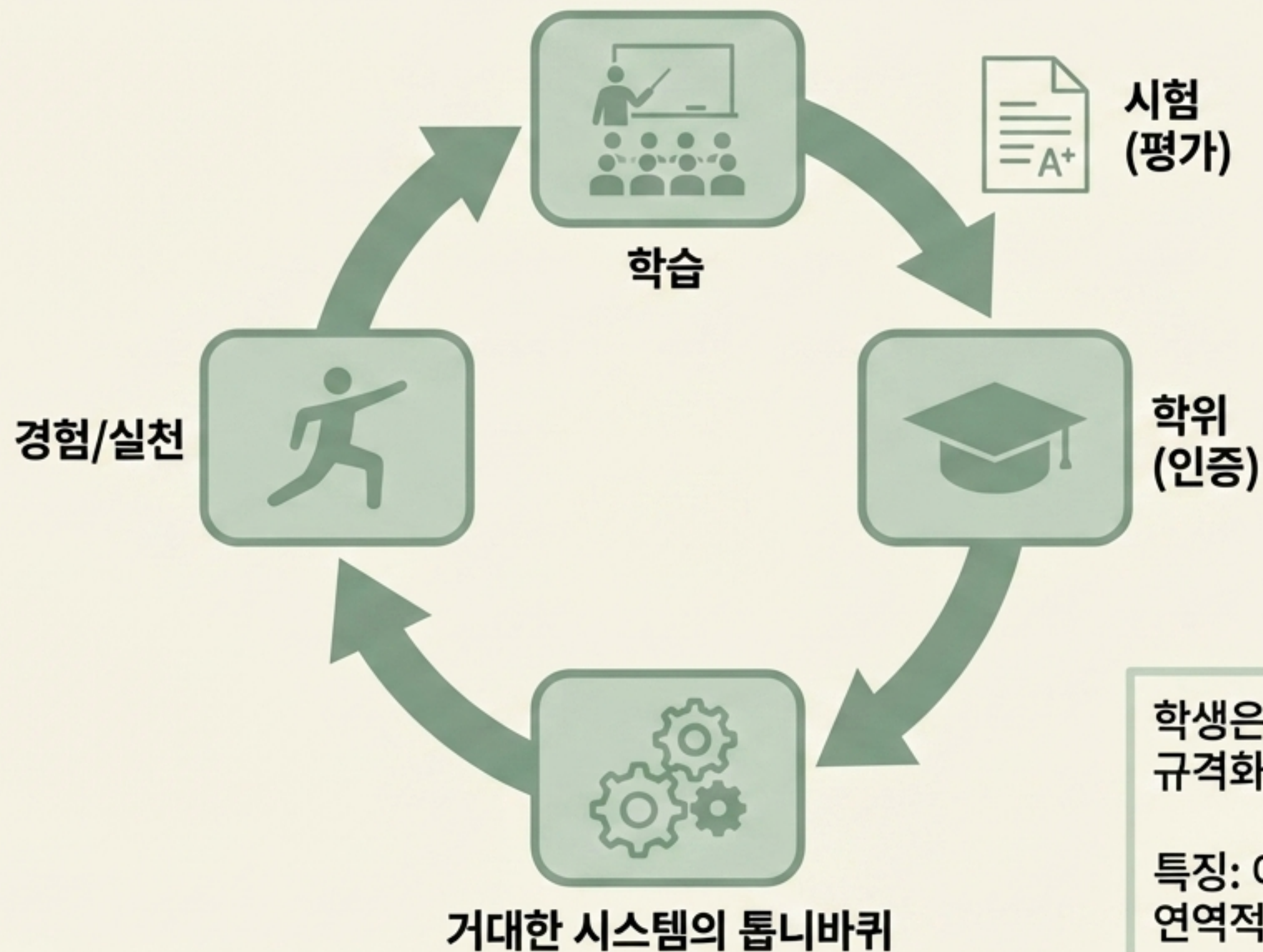


[배움] 물리적 자세: 정보의 조각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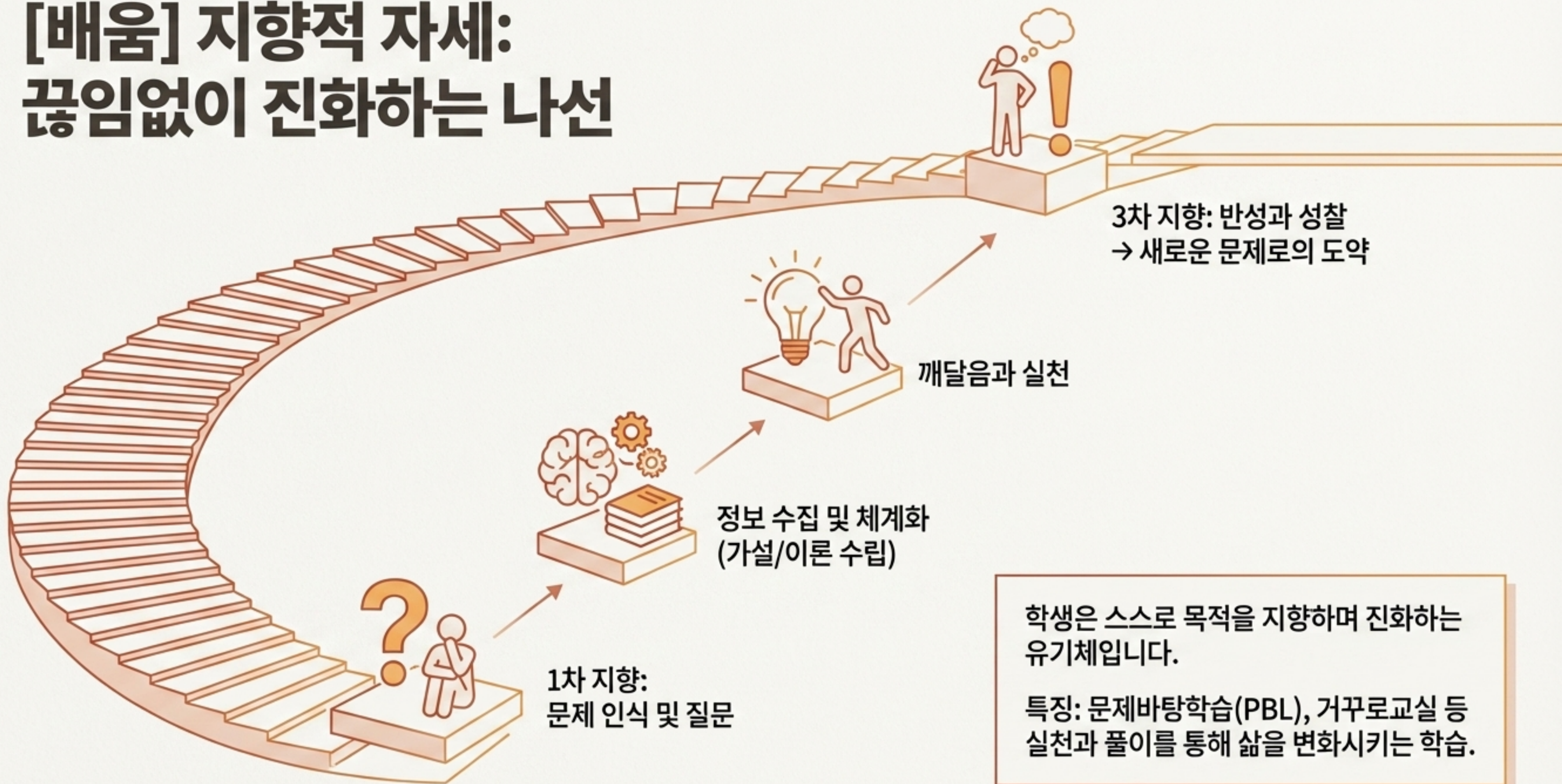


학생은 데이터를 입력받는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특징: 정답을 찾는 기계적 과정, 귀납과 암기 중심의 학습.

[배움] 구조적 자세: 제도로서의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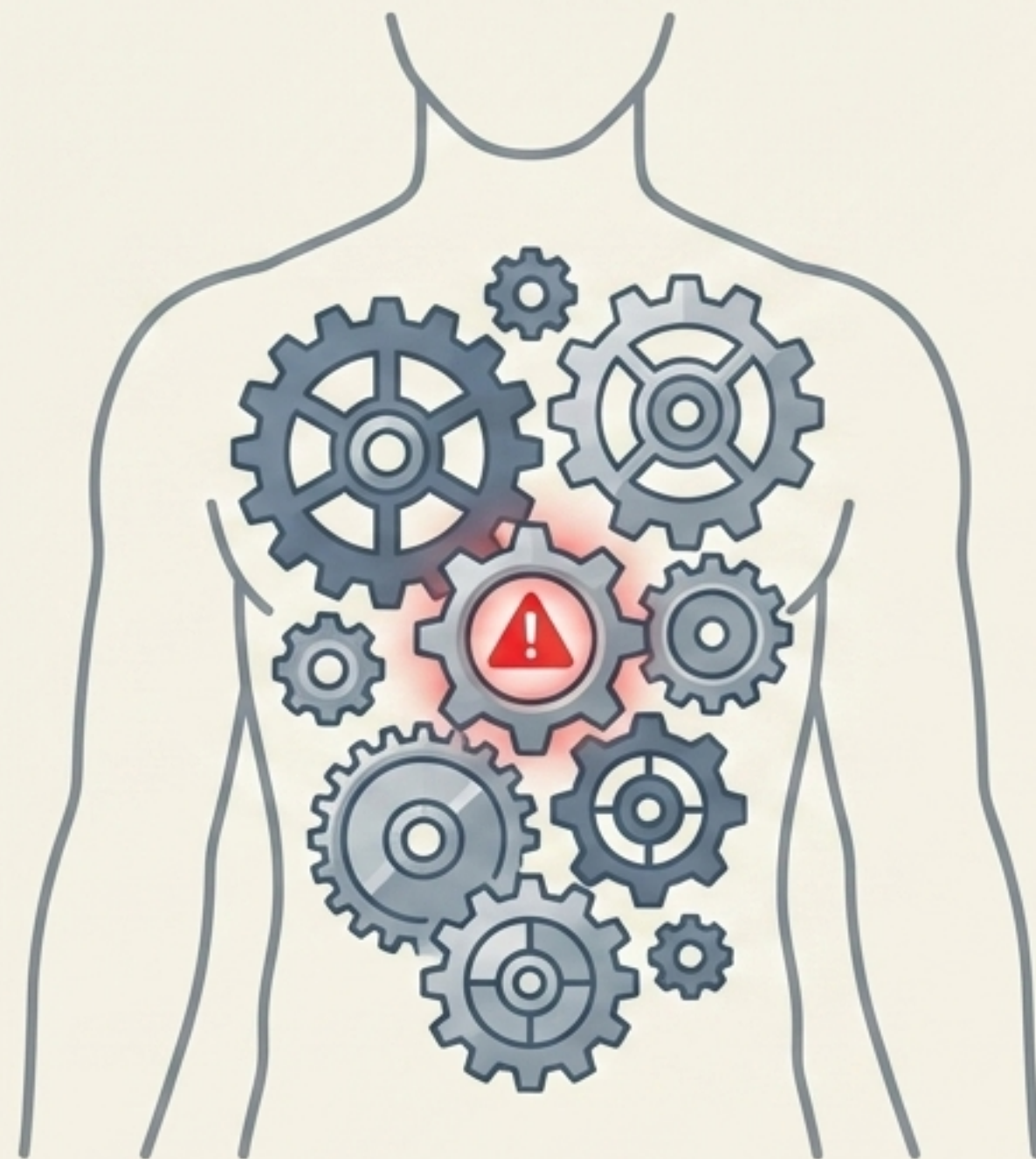
[배움] 지향적 자세: 끊임없이 진화하는 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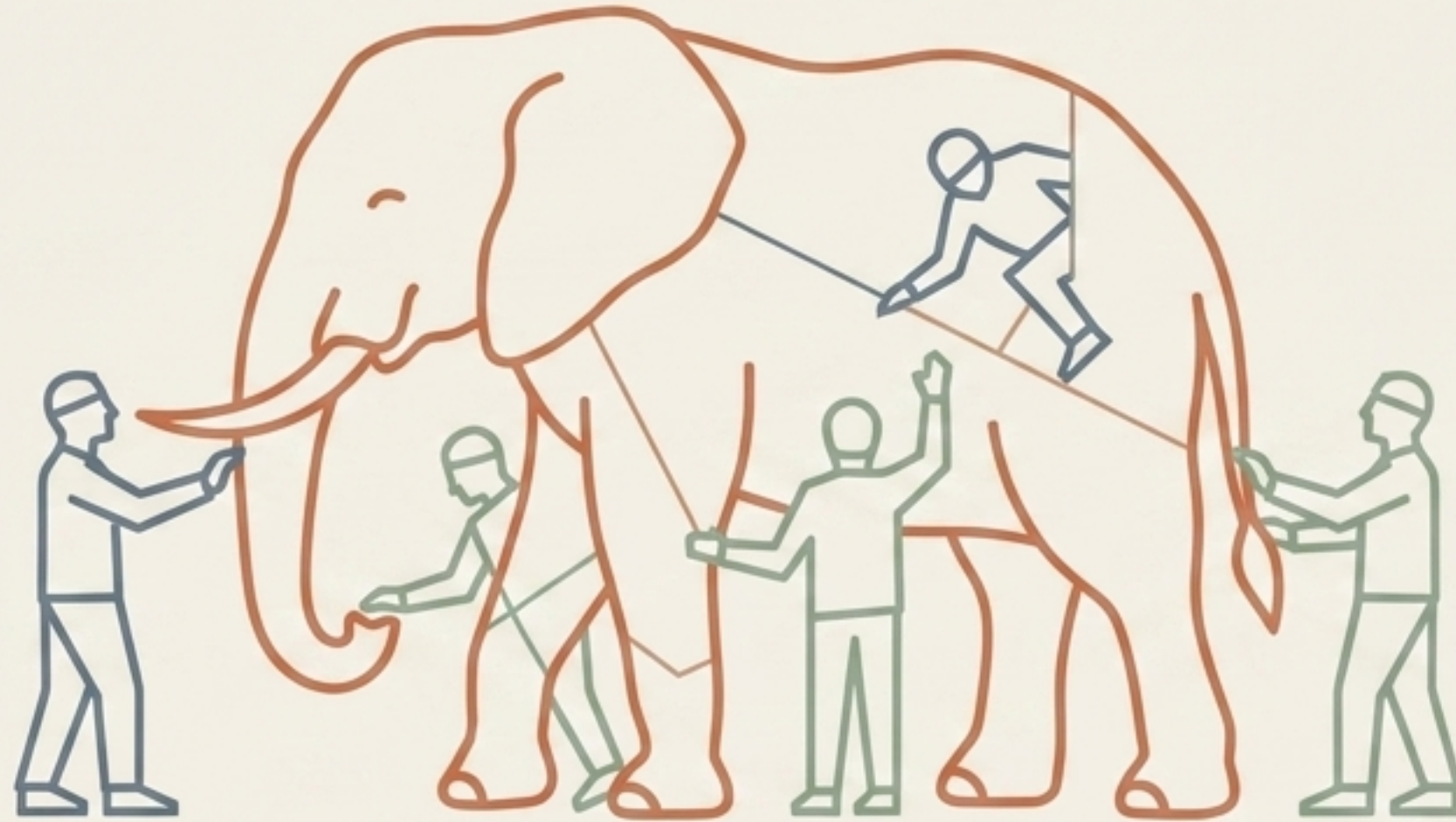
[돌봄] 물리적 자세: 고장 난 기계의 수리

생물-의학적 모형 (Bio-Medical Model)

- 몸은 정교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
- 질병(Disease)은 단지 특정 부품(장기, 세포)의 물리적 고장이다.
- 치료의 목적은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Mechanism)이다.



부분의 합은 결코 전체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몸'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코끼리의 일부만 만지고 전체를 단정 짓는 우를 범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병과 건강을 바라보는 우리의 '돌봄(Care)'은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요?

[돌봄] 구조적 자세: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생물-심리-사회 모형 (Bio-Psycho-Social Model, 1970년대~)



건강은 단순한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의 완벽한 네트워크 상태다. (WHO 1948)

[돌봄] 지향적 자세: 생명에 축적된 4가지 시간



진화의 시간
(Evolutionary Time):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거대한 적응의 역사



생애의 시간
(Life Course Time):
유년, 청년, 노년에 이르는
한 개인의 서사적 궤적



세포의 시간
(Cellular Time):
분명하고 재생하며 환경에
반응하는 미시적 생명력



분자의 시간
(Molecular Time):
DNA에 새겨진 가장 기초적인 기록

돌봄은 단순한 수리나 환경 조성을 넘어, 유기체가 살아온 전체 생애와 진화의 맥락(Organism)을 이해하고 지향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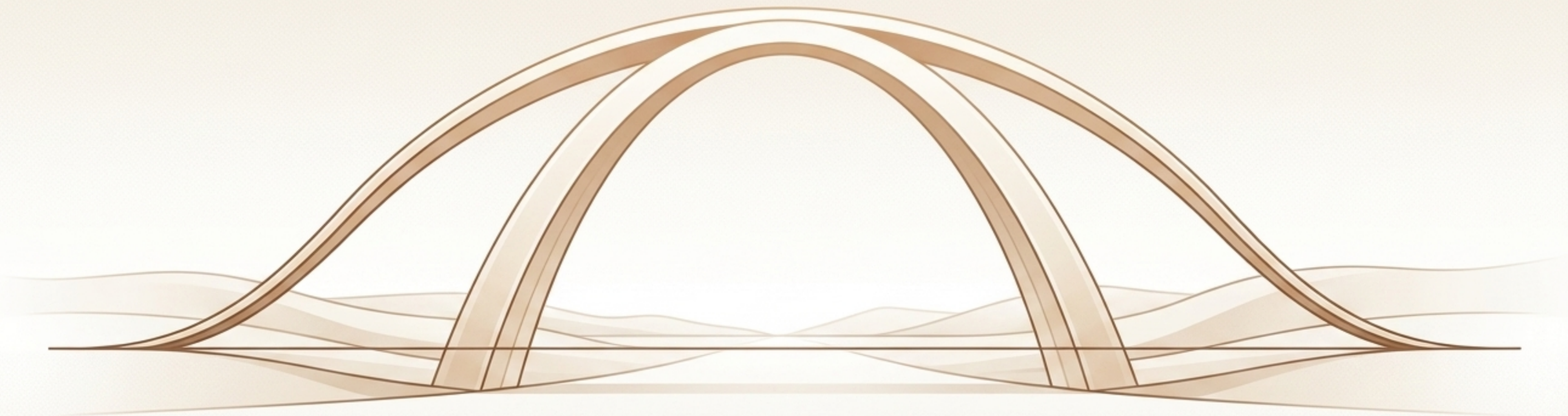
배움과 돌봄의 세 갈래 길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지향적 자세
배움	정보 지식 경험 귀납 암기	원리 이론-모형 이성 연역 추론	문제 목표 실천 귀추 풀이
돌봄	질병 생물 mechanism	건강 생명현상 system	삶 진화 organism Life Course Health Development
	Bio-Medical Model	Bio-Psycho-Social Model	



長箭

지향의 긴 활대



지향의 긴 확대 (The Expanding Bow of Stance)

근대 문명은 주로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자세에 머물며 눈부신 기계적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단순한 정보와 팩트를 넘어, 복잡한 맥락 속에 얽힌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향적 자세'로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진화생물학, 인지과학, 면역학의 성취는 이러한 철학적 반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과학 역시 스스로 성찰하며 하나의 자세로서 끝없이 진화합니다.

요약

- 세상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보는 세 가지 자세가 있다.
 -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지향적 자세.
- 근대 문명은 주로 물리적 자세와 구조적 자세로 일관했다.
- 21세기에는 정보와 사실을 넘어 다양한 맥락 속에 존재하는 실질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자세로 이행하고 있다.
- 이 과정에 진화생물학, 인지과학, 면역학 등 생물학 연구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 주효했다.
- 과학은 하나의 자세이며 그 성과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진화한다.
- 김원영 변호사가 장애인으로서 세상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보는 자세를 생각해 보자!!

당신의 배움과 돌봄은 지금, 어떤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김원영 변호사가 장애인으로서, 신체적 한계를 넘어 세상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보는 치열한 '지향적 자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진정한 배움과 돌봄은 주어진 구조나 결핍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립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유기체의 위대한 본성입니다.